

**<유니세프 뉴욕본부에서>**

나는 컬럼비아 대학원 사회정책학 석사 과정 중, 2010 년 10 월부터 2011 년 4 월까지 유니세프 뉴욕본부 정책분과 전략적 투자와 성과 분석팀(UNICEF NYHQ/ Division of Policy and Practice/ Unit of Strategic Investment and Performance Analysis)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나의 주 업무 중 하나는 유니세프 국가사무소와 지역사무소에서 본부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의 활동과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Executive Director 에게 전달될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UNICEF 의 전체적인 조직구조 및 보고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 속의 회의감도 커져만 갔다. “현장의 실상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제출된 한 두 장짜리 보고서만 읽고 현장의 활동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가? 히터가 뽕뽕하게 나오는 쾌적한 사무실의 널찍한 책상에 앉아있는 내가 책에서 얻은 지식만으로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성과를 평가한다고? 이게 옳은가?”

현장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로 인한 무력감이 주체할 수 없이 커졌을 때쯤, 나는 우연히 유니세프 인도 국가사무소에서 진행하는 KCCI(Knowledge Community on Children in India) 인턴쉽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KCCI 는 국제개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3 개월 동안 인도에서 아동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본 순간 나는 결심했다. “가자. 가서 현장을 경험하자. 본부의 책상에서 수립된 정책들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 <유니세프 인도 국가사무소에서>

학위 수여식을 마치고 불과 4 일이 지난 5 월의 어느 날, 나는 작렬하는 태양 아래 인도 뉴델리 공항에 서 있었다. 타지마할, 갠지스강, 세계 4 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 느림과 여유의 미학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거란 나의 기대는 도착과 함께 산산이 부서졌다. 섭씨 40 도에 육박하는 폭폭 찌는 더위에, 주인 없는 더러운 개들은 먹이를 찾아 떼를 지어 거리 곳곳을 어슬렁거리고, 숙소에 가기 위해 택시를 잡을 때마다 기사들은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요구하기 일쑤였다.

인도에 처음 온 외국인은 누구나 겪는다는 Delhi belly(인도에서의 외국 여행자의 설사)로 인해 지친 몸을 가까스로 추스르며 참석한 오리엔테이션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약 40 명의 인턴이 있었다. 이 중 반은 인도인이고 나머지 반은 외국인(비-인도인)이었는데, 외국인 중에서 동양인은 내가 유일했다. 나는 인도 남성, 인도 여성, 미국 여성과 함께 한 팀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는 3 일 동안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은 뒤, 실제 연구조사를 진행하게 될 인도 남부의 외딴 소도시, 마이소르(Mysore)로 파견되었다.

우리 팀에게 주어진 과제는 유니세프가 IT for Change(IT4C)라는 인도의 지역 NGO 와 함께 지난 2 년 동안 마이소르 근처 오지마을에서 진행했던 시범사업, *Kishori Chitrapata* (KC)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그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KC 프로젝트는 조혼, 빈곤, 가부장제 등의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고 집 안에만 머물러야 했던 여아들에게 사진기, 캠코더,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을 활용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 여아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인 교육 사업이었다.

프로젝트의 성격을 감안해, 질적 연구 방법론을 택하기로 한 우리 팀은 우선 인터뷰할 집단들을 분류해 나가기 시작했다. KC 교육을 받은 여아들, 받지 않은 여아들, 교육을 받다가 중단한 여아들을 따로 만나 그들의 자신감 및 자존감 정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부모, 마을 어른, 정부관계자, 실제 교육을 진행했던 IT4C 의 활동가를 만나 인터뷰를 하며 KC 가 여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인터뷰 진행은 생각만큼 수월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높은 까닭이었다. 우리 팀에 인도의 공식어인 힌디어를 구사하는 인도인이 두 명이나 있었지만, 우리가 들어간 오지마을에서는 힌디어가 사용되지 않고 그들만의 지역 방언이 통용되어 늘 통역관을 동반해야 했다. 또한 아무리 KC 교육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이 늘어 자신감이 높아졌다 해도, 오지마을의 여아들은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외지인, 그것도 한국 남성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다. 사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말을 건네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또, 한번은 여아들의 부모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항이 부모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부모들이 농번기에 우리를 하릴없이 기다리다 크게 화가 난 일이 있었다. 당시 그들은 우리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기까지 했다. 정부관계자 중 일부는 KC 프로젝트가 정부에서 기획, 주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터뷰에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난관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전달되었는지 그들도 차츰 우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결국 우리는 계획했던 모든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또 인간적으로도 매우 가까워져 나중에는 한 여아의 전통 혼례식에 초대를 받기도 했다. 그렇게 약 세 달간의 현장 연구조사를 마치고 다시 뉴델리로 돌아온 우리는 유니세프직원과 인도 연방정부 관계자들 앞에서 “KC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으며 인도 전역으로 확대되어도 좋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얼마 전 유니세프 인도 국가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다. 우리 보고서가 유니세프 공식 문서로 발간된다고!

### <국제기구, 특히 국제개발관련 국제기구에서 일하고픈 사람들에게>

흔히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으면 언어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추라고 조언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민족, 인종,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격의 없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열린 태도와 자세,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경험과 본부에서의 경험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뉴욕이나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본부에서 행정 실무를 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직구조나 의사결정과정을 알면 조직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본부에서는 훨씬 더 수월하게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에, 그 속에서 쉽게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다. 나 역시 유니세프 본부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 2005 년에 인도 국가 사무소에서 근무하시며 KCCI 인턴쉽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기획, 운영하신 한 한국인 직원분을 만나서 조언을 들었다.

그런데 본부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의 경험도 중요하다. 물론 현장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내가 연구를 위해 마이소르 시내에 갔던 바로 그 다음 날, 내가 전날 지나갔던 그 길에 야생 코끼리들이 난입하여 행인을 죽였다. “내가 하루만 늦게 갔더라면...”이라는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그럼에도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정책과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일선에서 그것들을 집행,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흔히 국제개발의 꽃은 현장이라고 한다. 현장경험이 있다고 해서 국제개발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개발전문가 중에 현장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현장경험과 본부행정경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나 역시 그것을 위해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